

사랑과 나눔의 현장

“크린백을 박스에 담아서 복도 끝에 잘 쌓아주세요.”

“아침 안먹어서 배도 많이 고프는데, 왜 자꾸 물건 나르는 거 시키는 거예요?”

다운회 아름다운작업활동센터 담당교사의 업무지도에 친구들이 약간 짜증 섞인 어리광을 부러보지만 곧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

6년째 다운회 무료건강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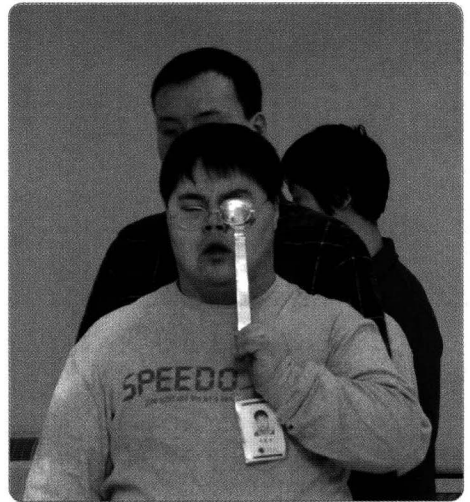
2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다운회관에 도착하였는데, 1년에 한번 오는 곳이지만 정겹다. 다운회 무료건강진단을 6년째 실시하여서 일까. 회관 3층에서는 아름다운작업활동센터 근로자 40여명이 용기종기 모여 크린백과 수출용 행주 포장작업에 열중하고 있었고, 그들을 잔잔하게 응원하기 위한 음악이 흘렀다. 음악은 불안정적인 것을 안정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바람직한 상태로 도달할 수 있도

록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음악도 하나의 치료수단이 될 수 있기에 의미가 각별하다.

임시장소가 마련된 회관 3층, 서울센타 직원들은 검사 준비로 분주하다. 10시가 되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온다. 저 친구들도 우리 얼굴을 기억할까.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의젓해진 친구들의 모습이 대견스럽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검사들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인가 보다. 시력검사에서서는 시력판을 제대로 응시하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다운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청력검사를 받던 한 친구가 헤드폰을 벗어버리고 검사요령을 설명하는 한근연 간호사의 어깨를 밀쳐버리는 잊지 못할 작은 사건(?)도 발생하였다.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채혈, 송민숙 병리사는 채혈 전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은 기본이고 채혈을 마친 후에는 칭찬을 한아름씩 안겨준다. 다운회 건강진단에 오랫동안 참가한 베테랑답다.



← 신장 측정을 위해
설봉수 직원이
검사자의 바른
자세를 유도하고
있다.



↑ 안경을 쓴 친구들이 많았는데도 시력이 좋은 친구들은 거의 없었다.



← 잔뜩 겁먹은 얼굴로 김보라 간호사에게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한다.

이번 건강진단에는 특별히 특수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재활팀 학생 15명이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든든한 후원자인 부모님이 함께 하였지만 처음이어서 일까, 무섭



† 검사는 신경쓰지 않고, 카메라만 의식하고 있는 친구. '저 귀엽죠.'

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급기야 영영 울어대는 바람에 현장이 잠시 술렁거리기도 했지만, 설득하고 격려하면서 어렵사리 건강진단을 마쳤다. 그러나 채혈에서 맨 마지막 검사자, 20여분이나 실랑이를

벌였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친구에게 '다음에는 씩씩하게 잘 해내자'며 검진팀원들은 새끼손가락을 걸어주었다.

정확한 기본검사로 건강상태 점검

검사가 끝날 무렵, 아름다운작업활동센터 이상춘 원장님께서 재작년과 작년에 협회에서 실시했던 건강진단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하셨다. 검사결과로 건강상태의 변화를 체크하여, 결과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이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질병의 예방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항목은 바로 건강진단. 이것은 다운회 친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단지,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회에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친구들이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따뜻한 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포근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 완강하게 채혈을 거부했던 친구에게 결국은 맛있는 간식을 입에 넣어 주어야 했다.

† 의사 선생님의 진찰과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 X-ray 촬영을 담당했던 이육영 직원은 친구들의 자세를 잡아주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 '아름다운작업활동센터'에서는 18세 이상의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정신지체인이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크린백과 행주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